

2015.2.14시행 경찰(순경)1차 한국사[공무원저널 칼럼용]

해설: 경/공/소방/법검단기 전한길교수

-아래 해설 자료의 저작권은 전한길교수에게 있으므로 무단 복제를 일체 금지합니다.

-단, 수험생의 확인용으로만 허락합니다.

총평

전체적인 난이도는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던 2014년 경찰 1차와 2차의 중간 정도로 출제되어 약간 어려웠다. 전근대사에서 14문항, 근현대사에서 6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전근대사의 14문항 중 선사시대를 포함한 정치사 5문항, 사회·경제사 2문항, 난이도가 높은 문화사에서 7문항이 출제되어 문화사가 난이도 상승을 이끌었다. 또한 근현대사에서 연도의 순서를 묻는 문제와 6.15공동선언의 사료가 어렵게 출제되어 결국 근현대사 단원이 경찰한국사시험의 운명을 갈랐을 것으로 보인다.

합격 점수는 80점 정도로 예상되며 90점 이상이면 고득점이 예상된다.

경찰한국사는 영어와 함께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한국사 고득점을 원하는 수험생은 한국사의 주요 역사적 사건의 전후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이해를 넘어서 암기까지 병행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1.② 필기노트p.8 5.0최종점검p.11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와 잔무늬거울은 청동기시대가 아니라 초기 철기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2.③ 필기노트p.10 5.0최종점검p.12

초기 여러나라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로 (가)는 고구려, (나)는 옥저, (다)는 동예, (라)는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① 부여의 풍습, ② 삼한의 제천행사, ③ 동예의 책화, ④ 고구려의 서옥제에 대한 설명이다.

3.③ 필기노트p.60 5.0최종점검p.66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로 통일신라의 문화는 일본에 아스카 문화가 아니라 하쿠호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4.② 필기노트p.41 5.0최종점검p.39,40

제시문은 통일신라 민정문서이다. 민정문서에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여 호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고 연령별로 6등급을 구분하였으며 논, 밭, 결수, 사람 수, 노비 수, 소·말 수와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수 등을 조사하였다. 민정문서에는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5.① 필기노트p.50 5.0최종점검p.49,59

제시문은 신라의 6두품에 대한 설명으로 6두품은 중앙과 지방 장관이 될 수 없으며 장관직은 진골이 독점하였다.

6.① 필기노트p.19,51 5.0최종점검p.17,64

발해에 대한 문제로 발해 지배층의 대부분은 고구려인이 차지하였고 피지배층은 말갈족이 다수였으며 그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기도 하였다.

7.③ 필기노트p.12,13,14 5.0최종점검p.14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로 백제의 사비천도는 무령왕이 아니라

성왕 때이다.

8.② 필기노트p.64,65 5.0최종점검p.71,72

고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의 특징적인 불상으로 균형미가 부족한 대형 불상이다. 신라양식을 계승한 것은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이다.

9.④ 필기노트p.63 5.0최종점검p.68,69

고려시대 승려 중에서 지눌의 제자인 혜심은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여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의천은 흥왕사에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먼저 통합한 후에 국청사를 창건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여 해동 천태종을 열었다. 지눌과 혜심의 활동은 선종을 후원하고자 하는 무신 정권의 지원을 받았다. 광종 때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며 문과, 잡과, 승과를 두었지만 무과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10.③ 필기노트p.68 5.0최종점검p.78

조선시대 15세기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문제로 세조 때 토지 측량기구로 인지의, 규형을 제작하였다.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태조 때, 계미자와 갑인자는 각각 태종, 세종 때 만들어 졌으며 특히, 갑인자는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인쇄 속도를 높였다. 15세기 군사훈련 지침서로서는 병장도설이 있으며 동국병감은 김종서가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병법서이다.

11.② 필기노트p.29 5.0최종점검p.26

제시문은 단종을 몰아내고 6조 직계를 통한 왕권 강화 정책을 폈던 세조에 대한 설명이며 세조는 경기 과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과전법 대신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과거제 시행과 광덕·준공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것은 고려 광종, 경국대전을 반포한 것은 조선 성종, 이종무를 보내서 쓰시마 섬을 토벌한 것은 세종의 업적이다.

12.④ 필기노트p.67 5.0최종점검p.76

조선시대 16세기 성리학의 융성에 대한 문제로 이언적은 주리론의 선구자이다. 서경덕은 주기론자의 선구자, 성학집요는 이이, 주자서절요는 이황이 지어서 선조에게 바친 것이다.

13.② 필기노트p.71 5.0최종점검p.81,82

조선후기 실학자와 업적을 묻는 문제로 고난도 문제였다. ㉠ 관리, 선비, 농민에게 차등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고 한 것은 유형원, ㉡ 정약용의 저서 중 경세유표는 주로 중앙정치조직의 개혁안을 담고 있으며 지방행정에 대한 내용은 목민심서인데,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세유표에 대해서 국정교과서에서는 시험문제 출제자의 의도[발표된 정답]대로 "중앙정치제도 개혁"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경세유표에는 지방행정에 대한 내용도 일부 수록되어 있어서 복수 정답의 가능성이 있다. ㉢ 영업전은 유형원이 아니라 이익의 한전론에 대한 설명, ㉣ 소비강조는 박지원이 아니라 박제가, ㉤과 ㉥의 내용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14.② 필기노트p.72 5.0최종점검p.83

이종회의 동사는 고구려사,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사에 대한 역사를 강조하여 협소한 반도적 사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100리 척이 아니라 10리 척을 사용하였으며, ③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참고한 것은 한치윤의 해동역사, ④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우리 역사에 대해서 독자적 정통론에 근거해서 기록한 강목체의 역사서이고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사만 집중 연구한 것은 이금익의 연려실기술이다.

15.④ 필기노트p.78 5.0최종점검p.98

제시된 자료는 키가 작았던 전봉준을 녹두에 비유하여 만든 노래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자료이다. ① 교조신원운동은 최시형이 아니라 최제우에 대한 신원운동이고, ② 단발령은 을

미개척과 관련이 있고 동학농민운동과는 관련이 없으며, ③ 우금치 전투에서는 농민군이 일본군에 패배한 전투이다.

16.① **필기노트p.84** 5.0최종점검p.102

신민회는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공화정을 목표로 하였다.

17.④ **필기노트p.104** 5.0최종점검p.126

일제강점기 국학운동에 대한 문제로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운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일제의 식민사관인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① 청구학회는 친일단체이며, ② '5000년간 조선의 얼'은 박은식이 아니라 정인보가 지은 것이고, ③ 중광단과 북로군정서는 천도교가 아니라 대종교에서 만든 독립군대이다.

18.① **필기노트p.99** 5.0최종점검p.115,116,118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여러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간도참변은 1920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은 1929년, 국민표회의소집은 1923년, 미쓰야협정은 1925년이다.

19.③ **필기노트p.106,107,110,111** 5.0최종점검p.133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연도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1953년 10월, 제 2차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휴전협정은 1953년 7월, 제 1차 개헌인 발체개헌은 1952년, 1968년 1.21사태와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에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1968년에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다.

20.④ **필기노트p.117,118** 5.0최종점검p.143,144

제시문은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일부 내용이다. 5.0최종점검에 실려 있는 사료가 그대로 출제되었다.